

변해가는 우리동네

오륙도 초등학교

5학년 2반 윤민지

شط자리 포구를 돌아

해파랑길을 따라 걷다보면

파란 하늘과 바다가 나타난다.

살기 좋은 우리동네 바닷가 동네

언제부터인지 나풀나풀 날리는

하얀 먼지와 바람에

자연색은 사라지고

연회색이 뚜렷해지는 우리 동네

바다 너머 보이던 오륙도

더 멀리 보이던 대마도

솔밭 푸른 동백섬도

점점 흐린 회색 풍경이 되어가고

“하늘은 무슨색이에요?”

“오늘 바람은 어떤가요?”

이제는 고민하고 대답해야 하는

뿌연 내 마음은 참 슬프다.